

참고 자료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2024. 4.

목 차

1. 조사 개요.....	1
2. 총괄표.....	2
3. 조사 결과	5
1) 장애 인구.....	5
2) 일반 특성.....	7
3) 건강 특성.....	9
4) 일상생활 및 돌봄 특성	14
5) 사회적 특성.....	16
6) 경제적 특성.....	21
7) 복지서비스 수요.....	25

I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는 전국 등록장애인 8,000명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짐.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9조에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2007년 법 개정 이후 매 3년마다 실시
-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1990년 1차 조사 이후 10번째 조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2023. 9월 ~ 2023. 11월까지 실시
- 본 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함.
※ 최종보고서는 '24. 하반기에 공개 예정

2

총괄표

□ 장애인구 및 출현율

구 분	2017년	2020년	2023년	비 고
•장애 인구수 (추정수, 등록장애인 수)	266.8만명	262.3만명	264.7만명	※ 2017년은 미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추정수이며, 2020년 및 2023년은 등록장애인 수입
•장애 출현율	5.39%	—	—	
•장애 등록률	94.1%	—	—	
•65세 이상 인구	46.6%	49.9%	54.3%	
•1인 가구	26.4%	27.2%	26.6%	
•후천적 장애발생률	88.1%	80.0%	88.1%	※ 후천적 질환 (58.1%) 후천적 사고 (29.9%)

□ 일반 특성

구 분	2017년	2020년	2023년	비 고
•대학 이상 학력	15.2%	14.4%	17.4%	25세 이상 장애인
•결혼상태(유배우)	55.3%	51.3%	51.8%	18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비율	16.2%	25.0%	17.3%	
•수급자 비율	16.3%	27.7%	20.8%	※ 전체 인구 수급률 4.8%(2022년 기준), 약 4.3배

□ 건강 특성

구 분	2017년	2020년	2023년	비 고
•만성질환 유병률	81.1%	72.1%	84.8%	19세 이상
•스트레스 인지율 ¹⁾	58.0%	33.7%	31.2%	19세 이상 ※ 2017년은 2020, 2023년과 응답범주가 상이하여 비교 어려움
•우울감 경험률	18.6%	18.2%	12.4%	19세 이상
•건강검진 비율	72.7%	70.4%	70.3%	전 연령
•정기적 진료(치료) 여부	82.3%	76.3%	88.5%	전 연령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	26.0%	22.9%	23.7%	전 연령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률 ³⁾	17.0%	32.4% ²⁾	17.3%	전 연령

주 : 1) 스트레스 인지율: 2017년은 5점 척도 사용 및 상이한 응답 범주로 2020년 및 2023년과 비교 어려움.

· 2017년도 : 5점 척도(매우 많이 느낌-느끼는 편-보통-느끼지 않는 편-전혀 느끼지 않음)

· 2020년, 2023년 4점 척도 (대단히 많이 느낌-많이 느끼는 편-조금 느끼는 편-거의 느끼지 않음)

2)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시기의 외출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환경을 고려해야 함.

3)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률

□ 일상생활 및 돌봄 특성

구 분	2017년	2020년	2023년	비 고
•일상생활 남의 도움 필요정도	34.0%	32.1%	35.3%	‘일부 남의 도움 필요’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와주는 사람 유무	83.3%	74.1%	87.3%	
•도움 충분정도 ¹⁾	63.6%	54.9%	62.3%	

주 : 1) 4점 척도 사용 (~~매우 충분-충분~~-부족-매우 부족)

□ 사회적 특성

구 분	2017년	2020년	2023년	비 고
•생활만족도	3.2점	3.2점	3.3점	5점 기준(5점 매우 만족, 1점 매우 불만족)
•여가생활 만족도	3.0점	2.9점	3.1점	5점 기준 (5점 매우 만족, 1점 매우 불만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 인식 ¹⁾	20.1%	36.5%	19.9%	‘차별이 없다’에 대한 응답 비율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	13.9%	10.5%	14.9%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 비율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정도 ²⁾	36.7%	39.8%	35.2%	‘어렵다’에 대한 응답 비율

주 : 1) 4점 척도 (~~전혀 없다-별로 없다~~-약간 있다-매우 있다)

2) 4점 척도 (~~매우 어렵다-약간 어렵다~~-거의 어렵지 않다-전혀 어렵지 않다)

□ 경제적 특성

구 분	2017년	2020년	2023년	비 고
•가구 소득 수준	(장애인) 2,421 (전체가구) 3,635	(장애인) 2,536 (전체가구) 4,285	(장애인) 3,058 (전체가구) 4,834	※ 전체가구 월평균 소득과 비교 (단위: 천원) ※ 가계동향조사 (2016년 4/4분기, 2019년 4/4분기, 2022년 4/4분기) - 전체1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66.6%	59.2%	63.3%	
•가구 지출 수준	(장애인) 1,908 (전체가구) 2,761	(장애인) 1,895 (전체가구) 3,288	(장애인) 2,426 (전체가구) 3,625	※ 전체가구 월평균 지출과 비교 (단위: 천원) ※ 가계동향조사 (2016년 4/4분기, 2019년 4/4분기, 2022년 4/4분기) - 전체1인 이상 가구 월평균 지출
	69.1%	57.6%	66.9%	
•현재 장애추가비용	165.1천원	152.6천원	170.0천원	
•차량 소유율	52.1%	46.1%	52.2%	
•자가 비율	62.3%	58.2%	60.0%	

구 분	2017년	2020년	2023년	비 고
•장애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	36.9%	29.5%	37.2%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비율
•실업률	5.1%	5.8%	4.2%	통계청 ILO기준 적용
•취업장애인 월평균 근로소득	171만원	188만원	215만원	

□ 복지서비스 수요

구 분	2017년	2020년	2023년	비 고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1순위)	소득보장 (41.0%)	소득보장 (48.9%)	소득보장 (43.9%)	
	의료보장 (27.6%)	의료보장 (27.9%)	의료보장 (26.9%)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률	96.0%	88.1%	98.2%	
•장애인 기관 이용 경험률	21.0%	17.8%	25.3%	
•장애인 기관 향후 이용 희망률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37.1%)	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 (14.0%)	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 (44.3%)	
	장애인 재활병의원 (36.1%)	장애인복지관 (11.2%)	장애인 재활병의원 (25.9%)	
	장애인체육시설 (21.0%)	장애인 재활병의원 (10.6%)	장애인복지관 (21.8%)	
•장애등록 이후 국가·사회로부터의 지원 정도 인식 수준	2.9점	2.6점	2.9점	5점 기준 (5점 매우 많이 받고 있다, 1점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3

조사 결과¹⁾

① 장애 인구

□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로 조사한 장애인은 8,000명으로 등록 재가 장애인 263.0만 명을 추정함.

○ 등록장애인(2023. 5월말 기준) 중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 2.7만 명을 제외하면 재가 장애인은 263.0만 명임.

【 재가 장애인 현황 】

(단위: 명)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재가 장애인 수	2,611,126	2,646,064	2,580,340	2,622,950	2,630,374

주: 2011, 2014, 2017년은 미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추정수이며, 2020, 2023년은 등록장애인 DB에 기반한 수입.

【 등록 장애인 현황 】

(단위: 명)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등록 장애인 수	2,519,241	2,494,460	2,545,637	2,623,201	2,646,922

주: 2011, 2014, 2017년은 등록장애인 DB의 해당 연도 12월 말 기준이며, 2020, 2023년은 해당 연도 5월 말 기준임.

1)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2024. 3월 말 기준 자료임

□ 장애발생은 후천적 원인이 88.1%로, 후천적 사고(29.9%)보다는 후천적 질환(58.1%)에 의한 경우가 더 많음.

○ 그 외 장애발생 원인은 선천적 원인 4.4%, 출산시 원인 1.1%임.

【 장애 발생 원인 】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선천적 원인	4.6	4.7	5.1	7.9	4.4
출산시 원인	0.9	1.3	1.4	1.4	1.1
후천적 원인	90.5	88.9	88.1	80.0	88.1
(질환)	(55.1)	(56.2)	(56.0)	(43.6)	(58.1)
(사고)	(35.4)	(32.7)	(32.1)	(36.4)	(29.9)
원인불명	4.0	5.1	5.4	10.7	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장애 발생시기는 영유아 및 50대 이상 장·노년기에서 높았음.

○ 5세 이하가 12.9%이며, 50대 이후에 발생한 비율은 44.5%임

【 장애 발생 연령 】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5세 이하	14.1	15.3	14.7	16.2	12.9
6-10세	4.4	5.0	5.1	4.4	4.8
11-19세	6.4	6.0	6.0	5.7	5.1
20-29세	10.3	9.7	7.9	8.7	8.5
30-39세	10.5	9.7	9.8	9.8	9.6
40-49세	15.2	14.4	14.6	13.2	14.7
50-59세	15.4	15.9	17.7	17.0	16.1
60-69세	15.1	15.6	15.9	14.5	15.2
70세 이상	8.6	8.4	8.2	10.6	1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일반 특성

□ 장애인의 연령 분포는 65세 이상이 54.3%로 2020년 49.9%에 비해 4.4%포인트 증가함.

○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따라 장애노인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여줌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은 18.2%, 943.5만 명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3년 기준)

【 연령 분포 】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0-17세	3.5	2.7	3.3	3.0	3.1
18-29세	4.2	4.1	4.6	4.2	3.9
30-39세	7.2	6.7	4.8	4.8	4.0
40-49세	14.2	12.5	10.4	9.5	8.0
50-64세	32.1	30.7	30.3	28.7	26.8
65세 이상	38.8	43.3	46.6	49.9	54.3
65-74세	23.8	23.5	23.5	22.0	23.1
75세 이상	15.0	19.8	23.1	27.9	3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장애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으로 2020년의 2.31명에 비해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 경향임.

○ 장애인 1인 가구는 26.6%임. 그 중 65세 이상은 64.6%로 2020년 대비 2.7%포인트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임

※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추정수 750만 가구(34.5%) (통계청, 2023)

【 가구 규모 및 1인 가구 비율 】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가구원 수 평균	2.82명	2.61명	2.59명	2.31명	2.28명
1인 가구 비율	17.4	24.3	26.4	27.2	26.6 (69.8만명)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비율)	(56.5)	(59.6)	(59.3)	(61.9)	(64.6)

□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7.4%로 2020년 14.4%에 비해 3.0%포인트 증가함

○ 65세 미만의 경우 대학 이상 학력자는 29.0%, 고등학교 학력자는 47.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학은 1.7%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교육 정도 】

(단위: %)

구분	전체 연령					65세 미만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무학	12.3	12.0	10.9	9.2	8.5	4.0	3.8	2.5	2.3	1.7
초등학교	33.0	29.4	27.5	28.4	26.8	24.9	19.3	15.6	11.6	9.5
중학교	18.4	16.0	16.8	18.1	16.3	21.2	16.1	16.6	17.2	12.2
고등학교	24.5	27.2	29.6	29.9	31.0	33.6	38.5	42.2	45.0	47.5
대학 이상 ¹⁾	11.8	15.3	15.2	14.4	17.4	16.3	22.3	23.1	23.9	2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25세 이상 기준

1) 대학 이상은 3년제 이상 대학~대학원 모두 포함.

□ 장애인의 결혼상태는 유배우 51.8%, 사별 20.7%, 미혼 17.0%, 이혼 9.7%, 별거 0.8%의 순임.

- 미혼의 27.8%는 향후 결혼(동거 포함)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 결혼 상태 】

(단위: %)

구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미혼	16.9	8.8	13.5	19.2	10.1	15.4	18.1	11.5	15.3	21.8	11.5	17.4	21.4	11.1	17.0
유배우	68.0	44.7	58.1	63.7	42.5	54.7	65.0	42.5	55.3	60.4	39.1	51.3	61.2	39.0	51.8
사별	5.0	38.2	19.1	5.6	38.2	19.5	5.3	36.6	18.7	6.6	39.9	20.8	5.6	41.2	20.7
이혼	8.8	7.2	8.1	9.3	8.0	8.7	9.9	7.9	9.0	10.5	8.7	9.7	10.9	8.1	9.7
별거	1.3	1.1	1.2	2.0	1.0	1.6	1.6	1.5	1.6	0.7	0.7	0.7	0.9	0.6	0.8
기타(미혼모/부)	0.1	-	0.0	0.1	0.1	0.1	0.0	0.1	0.1	0.0	0.2	0.1	0.0	0.1	0.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8세 이상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8%이며, 급여유형별로는 생계급여 17.4%, 의료급여 17.3%, 주거급여 20.7% 등임.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 4.8%(2022년 12월 기준)에 비해 약 4.3배 높은 수준임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유형별 수급 】

(단위: %)

구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생계급여	15.0	19.1	17.4
의료급여	16.2	25.0	17.3
주거급여	14.4	14.7	20.7
교육급여	1.4	1.8	1.2

③ 건강 특성

-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4.8%임.
- 특히 고혈압, 당뇨병은 전체 인구에 비해 높은 유병률을 보임
 - * 30세 이상 장애인의 고혈압 유병률(52.9%), 당뇨병 유병률(26.8%)
 - * 30세 이상 전체 인구의 고혈압 유병률(34.8%), 당뇨병 유병률(14.8%) (국민건강영양조사, 2022)

【 만성질환 유병률: 고혈압 / 당뇨(30세 이상) 】

(단위: %)

구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고혈압	35.2	42.5	46.9	43.9	52.9
65세 이상	49.3	58.4	62.3	56.9	65.8
당뇨병	15.2	20.3	21.9	21.7	26.8
65세 이상	20.0	26.7	28.7	26.6	32.5

- 장애인은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유한 만성질환은 고혈압(49.3%), 이상지혈증(27.6%), 당뇨병(25.1%), 골관절염(23.3%), 만성통증(1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고혈압은 99.0%, 당뇨병은 98.8%, 우울증은 87.7%가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재활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23.7%로 나타남.
- 18세 미만의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은 83.5%로 높은 수준으로 2020년의 74.9%에 비해 8.6%포인트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재활치료서비스 이용 장애아동 중 재활치료 지원 바우처 이용 비율은 89.4%임

【 재활치료 이용 비율 】

(단위: %)

	2011	2014	2017	2020	2023
전체 연령	23.0	25.4	26.0	22.9	23.7
18세 미만	63.7	68.5	73.8	74.9	83.5
65세 이상	28.1	31.8	31.4	24.1	25.9

주: 재활치료서비스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심리행동치료, 기타

- 19세 이상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인식은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8.9%로 2020년 14.0%에 비해 4.9%포인트 증가함. 그러나 전체 인구의 긍정적 인식 비율인 36.2%에 비하면 절반 수준임.
- 주관적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47.2%, ‘보통’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33.9%임.

* ‘좋다’- 좋음, 매우 좋음 비율의 합 / ‘나쁘다’- 나쁨, 매우 나쁨 비율의 합

【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인지율) 】

(단위: %)

		장애인			전체 인구 ²⁾
		2017년	2020년	2023년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4.9	14.0	18.9	36.2
	보통	33.8	37.3	33.9	45.0
	나쁨	51.3	48.7	47.2	18.8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19세 이상

2) 2022년 국민건강통계(질병관리청)

- 19세 이상 장애인 중 우울감 경험률은 12.4%, 자살 생각 경험률은 8.9%로 2020년의 18.2%와 11.1%에 비해 각각 낮아짐.
- 다만, 전체 인구의 우울감 경험률 4.7%, 자살 충동 비율 5.7%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장애인 중, 최근 1년간 정신적인 문제로 전문가 상담(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받은 경우는 5.1%로 전체 인구의 4.3%*에 비해 높음.

* 2022년 국민건강통계

【 우울감 경험, 자살생각 】

(단위: %)

	2020년	2023년	전체 인구
우울감 경험	18.2	12.4	4.7 ²⁾
자살 생각	11.1	8.9	5.7 ³⁾

주: 1) 19세 이상 기준

2) 2022년 국민건강통계(질병관리청), 우울증 선별도구(PHQ-9)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인 분율임

3) 2022년 사회조사(통계청), 13세 이상 기준

-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1.2%로, 2020년 33.7%에 비해 낮아졌으나 전체 인구 25.6%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 스트레스 인지율 (19세 이상) 】

(단위: %)

구분	2020년	2023년			전체 인구 ³⁾
		전체	19-64세	65세 이상	
(대단히 많이 - 많이 느끼는 편임)	33.7	31.2	35.7	27.6	25.6
(조금 느끼는 편임)	52.1	45.8	45.7	45.9	57.8
(거의 느끼지 않음)	14.2	23.0	18.6	26.5	1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19세 이상

2) 평소 스트레스 인지율에 대한 4점 척도 (대단히 많이 느낌-많이 느끼는 편-조금 느끼는 편-거의 느끼지 않음)

3) 2022년 국민건강통계(질병관리청)

- 장애인의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은 전체 인구에 비해 낮음.

- 19세 이상 장애인의 현재 흡연율은 15.7%, 고위험 음주율은 5.6%로 전체 인구 흡연률 16.9%, 고위험 음주율 13.4%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전체인구(19세 이상): 현재 흡연율 16.9%(평생 5갑 이상 흡연하였고, 일반담배(궐련) 흡연자(전자담배 제외), 2022년 국민건강통계)

* 전체인구(19세 이상): 고위험 음주율 13.4% (2022년 국민건강통계)

【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 】

(단위: %)

		2011	2014	2017	2020	2023
현재 흡연율	전체	24.0	20.5	18.7	12.6	15.7
	남	38.6	32.8	30.4	20.6	25.4
	여	4.1	3.9	3.1	1.8	2.5
고위험 음주율	전체	9.1	7.7	7.7	1.9	5.6
	남	15.0	12.4	12.4	3.1	9.4
	여	1.0	1.2	1.3	0.4	0.5

주: 1) 흡연율: 19세 이상.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에 대해 '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으로 응답한 비율
 2) 고위험 음주율: 19세 이상.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

○ 장애인 중 건강관리를 위해 월 1회 이상 운동하는 경우는 65.7%임.

【 건강을 위한 운동 비율 】

(단위: %)

	2011	2014	2017	2020	2023
건강을 위한 운동 비율	46.5	60.9	61.5	48.2	65.7

주: 18세 이상 기준, 월 1회 이상 운동한 경우의 비율

□ 장애인의 정기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은 88.5%로,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76.3%로 낮아졌던 것에 비해 증가함.

○ 18세 미만은 81.9%, 18~64세가 79.9%, 65세 이상은 95.7%로 노인과 아동의 지속·정기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높음.

【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의 정기적, 지속적 진료 여부 】

(단위: %)

구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연령별		
					18세미만	18-64세	65세이상
지속적 진료 받음	78.3	82.3	76.3	88.5	81.9	79.9	95.7
지속적 진료 받고 있지 않음	21.7	17.7	23.7	11.5	18.1	20.1	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장애인이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은 17.3%로, 2020년 32.4%의 코로나19 시기에 높아졌던 수준에 비해 낮아짐.

- 연령대별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은 18세 미만이 7.2%, 18-64세이 15.9%, 65세 이상이 19.0%으로 65세 이상이 높았음.
- 장애인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의 주된 이유는 이동의 어려움과 경제적 이유가 높게 나타났고, 65세 이상의 경우 이동 어려움 및 동행자 부재에 따른 미충족 비율이 높음.
- * 65세 이상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이유: 이동 불편(46.6%), 경제적 이유(27.1%),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8.9%), 증상의 가벼움(5.9%), 시간이 없어서(5.2%) 등

【 연간 미충족 의료율(병의원) - 연령별 】

(단위: %)

구분	18세미만	18-64세	65세이상	전체
미충족 의료 경험 있음	7.2	15.9	19.0	17.3
미충족 의료 경험 없음	92.8	84.1	81.0	82.7
계	100.0	100.0	100.0	100.0

【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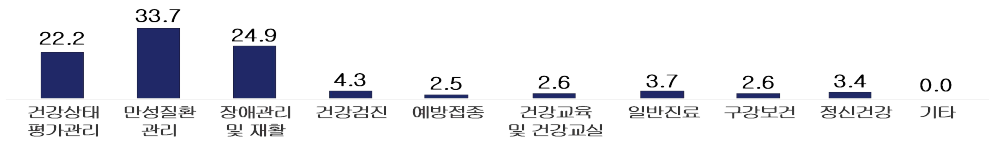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미충족 의료 경험 있음	19.1	17.0	32.4	17.3	
미충족 의료 경험 없음	80.9	83.0	67.6	82.7	
주된 이유	(경제적인 이유)	58.8	39.2	20.8	27.8
	(병의원 등예의 예약 어려움)	1.9	0.2	0.7	0.8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15.2	25.0	29.8	36.5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운영안함)	6.1	—*	—*	—*
	(병의원 등에서의 오랜 기다림)	2.5	0.9	4.3	0.8
	(증상의 가벼움)	6.4	6.9	19.3	6.0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1.8	1.1	1.1	2.6
	(의사소통의 어려움)	4.5	2.5	3.3	3.6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0.9	0.9	0.5
	(시간이 없어서)		13.7	7.3	13.0
	(의료기관 방문시 동행할 사람이 없음)		7.8	6.8	7.1
	(어떤 의료기관에 가야할지 몰라서)		1.0	1.6	0.9
	(기타)	2.8	0.6	4.1	0.5
	계	100.0	100.0	100.0	100.0

주: * 2017년부터 보기문항 없음, (음영) 2017년부터 신설 보기문항임.

-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정부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건의료, 건강 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33.7%), 장애관리 및 재활서비스 (24.9%), 건강상태 평가 및 관리(22.2%) 등으로 조사됨.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 건강 관련 서비스



4 일상생활 및 돌봄 특성

- 장애인의 35.3%는 일상생활 수행시 주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의 32.1%에 비해 3.2%포인트 증가함.

- 65세 이상 중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37.2%로 2020년의 34.1%에 비해 증가함.

* 일상생활지원 필요: 지원 필요 수준을 5점 척도로 응답하여 이 중, ‘일부 지원 필요-대부분 지원 필요-거의 모든 일에 지원 필요’ 비율의 합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단위: %)

구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혼자서 스스로	51.3	44.9	46.9	38.8	47.8	43.8	45.4	40.6
대부분 혼자서	16.5	18.5	19.2	23.6	20.1	22.0	19.4	22.2
일부도움 필요	17.7	21.2	19.5	21.7	17.2	18.4	23.0	25.9
대부분 필요	8.6	8.9	8.9	10.1	8.7	9.4	9.0	8.5
거의 남의도움 필요	5.9	6.5	5.5	5.8	6.2	6.3	3.3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16.0%로 2020년의 14.1%에 비해 1.9%포인트 증가함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장애인 생활도우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장애아양육지원사업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

(단위: %)

구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8.2	9.5	14.1	16.0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3.1	3.2	6.5	5.7
노인 장기요양보험	5.2	5.7	7.5	9.9
장애인 생활도우미,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등	-	1.2	2.9	1.5

주 : 6세 이상

○ 일상생활에서 주된 지원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는 82.1%로 가장 높았고, 공적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13.8% 수준임.

- 65세 이상 중 주된 지원자가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17.3%로 전체 장애인에 비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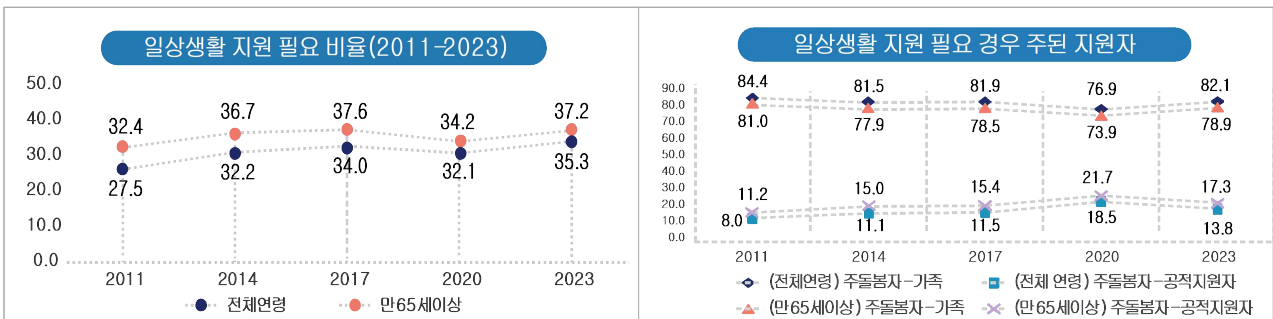
* 공적 서비스 제공자: 장애인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 주된 지원자 유형 】

(단위: %)

구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배우자	37.7	39.4	38.7	37.8
부모	20.1	21.1	20.8	21.2
자녀(며느리, 사위)	16.7	16.6	13.3	18.5
형제·자매	5.1	3.7	2.8	3.6
조부모	1.1	0.5	0.4	0.5
손자녀	0.5	0.3	0.4	0.3
기타 가족	0.3	0.3	0.5	0.1
친척	0.8	0.5	0.6	0.5
친구	0.8	0.2	0.4	0.3
이웃	1.1	1.1	0.2	0.9
활동지원사	3.3	2.2	8.5	3.4
가정봉사원	0.5	0.6	0.5	0.7
요양보호사	7.3	8.7	9.5	9.7
간병인	2.0	2.4	1.3	1.6
기타	2.7	2.4	2.1	0.7
계	100.0	100.0	100.0	100.0

주: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며, 현재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중 지원자 유형별 비율



-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현재 지원 수준에 만족하는 경우는 62.3%로, 2020년 54.9%에 비해 7.4%포인트 증가함.

【 현재 지원 충분도 】

(단위: %)

구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연령별		
					19세 미만	19-64세	65세 이상
충분함	58.9	63.6	54.9	62.3	50.5	64.4	62.5
부족함	41.1	36.4	45.1	37.7	49.5	35.6	3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⑤ 사회적 특성

① 생활만족도

-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3.3점*으로 2020년 3.2점에 비해 높아짐.

* 5점 기준 : 5점 매우 만족 ~ 1점 매우 불만족

- '가족과의 관계', '결혼생활',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만족 수준은 높은 경향을 보이고, '건강상태', '한달 수입(소득)',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수준은 낮은 경향을 보임.

【 생활 만족도 】

(단위: %)

구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매우 만족	7.1	5.0	5.1	6.6
약간 만족	48.5	53.6	50.7	58.5
약간 불만족	33.8	32.6	36.7	28.8
매우 불만족	10.6	8.8	7.6	6.2
계	100.0	100.0	100.0	100.0

【 생활 영역별 만족도 】

구분	(단위: %)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전반적 삶의 만족도	3.2	3.2	3.2	3.3
가족과의 관계	3.9	3.8	3.8	3.9
친구들 수(대인관계)	3.4	3.4	3.3	3.4
살고 있는 곳(집)	3.6	3.6	3.6	3.8
건강상태	2.7	2.7	2.8	2.9
한 달 수입(소득)	2.6	2.7	2.8	3.0
여가 활동	2.9	3.0	2.9	3.1
하고 있는 일	3.3	3.5	3.4	3.7
결혼생활	3.8	3.7	3.7	3.9

주 : 5점 기준 (1은 매우 불만족 ~ 5는 매우만족)

○ **장애인의 전반적 행복감***은 평균 5.79점으로, 전체 인구의 전반적 행복감 평균 6.56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전체 인구: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 18세 미만 6.15점, 18-65세 미만 5.93점, 65세 이상 5.68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반적 행복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 행복감: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행복한 정도를 의미함. 0~10점 중 응답하며 0점은 '전혀 행복하지 않음', 10점은 '매우 행복함'을 의미.

【 장애인의 전반적 행복감 】

구분	전체	연령별			전체 인구
		18세 미만	18-64세	65세 이상	
전반적 행복감	5.79	6.15	5.93	5.68	6.56

주: 1) 13세 이상 기준

2) 전반적 행복감: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행복한 정도를 의미함. 0~10점 중 응답하며 0점은 '전혀 행복하지 않음', 10점은 '매우 행복함'을 의미.

3) 전체 인구: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3차조사)-기초분석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②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 장애인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 수준이 높아졌으며, 이와 함께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아짐.

○ 장애인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는 경우는 14.9%로, 2020년 10.5%에 비해 높아짐.

※ 장애인 차별 금지법 '알고 있음' 비율 : 2014년 8.3%, 2017년 13.9%, 2020년 10.5%

【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 】

(단위: %)

구분	2020년	2023년	연령별		
			19세 미만	19-64세	65세 이상
알고 있다	10.5	14.9	20.3	23.7	7.7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	25.9	21.2	27.0	28.4	15.3
알지 못한다	63.6	63.9	52.7	47.9	7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는 비율은 80.1%로 2020년 63.5%에 비해 높아진 반면, 차별이 없다는 비율은 19.9%로 2020년의 36.5%에 비해 낮아짐.

※ 장애인 차별 인식(차별 없음) : 2014년 27.4%, 2017년 20.1%, 2020년 36.5%

【 장애인 차별 인식 】

(단위: %)

구분	2020년	2023년	연령별		
			19세 미만	19-64세	65세 이상
없다	36.5	19.9	7.7	13.3	25.8
있다	63.5	80.1	92.3	86.7	7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접근성(이동과 정보)

-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지난 1개월 동안 ‘거의 매일’ 외출한 경우가 63.4%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45.4%에 비해 증가함. ‘전혀 외출 않음’ 비율은 2020년 8.8%에서 2023년 3.5%로 감소함
 -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거의 매일’ 외출한 비율은 54.7%로 낮고, ‘전혀 외출하지 않은 경우’는 4.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음.
 - ‘전혀 외출 않음’의 이유는 ‘장애로 인해 몸이 불편함’(66.8%),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17.2%), ‘외출을 도와줄 도우미가 없어서’(8.5%) 등이 높게 나타남.

【 외출 빈도 】

(단위: %)

구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연령별		
				19세 미만	19-64세	65세 이상
거의 매일	70.1	45.4	63.4	94.8	72.1	54.7
주 1-3회	19.5	32.9	24.6	2.1	20.3	29.3
월 1-3회	5.9	12.9	8.6	1.4	5.1	11.7
전혀 외출 않음	4.5	8.8	3.5	1.7	2.4	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대중 교통수단 이용시 장애인의 35.2%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2020년 39.8%에 비해 낮아짐.

-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버스·택시의 물리적 접근·탑승 어려움'이 53.2%로 가장 높았고, '버스·택시 이용을 위한 정보 접근 어려움' 17.9%,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부족' 15.5% 등으로 나타남.

【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여부 및 이유 】

(단위: %)

구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36.7	39.8	35.2	
교통수단 이용시 어렵지 않음	63.3	60.2	64.8	
어려운 이유	버스·택시의 물리적 접근과 탑승의 어려움**	64.4	52.6	53.2
	버스·택시의 이용을 위한 정보접근 어려움**	14.6	12.1	17.9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	14.6	12.1	6.3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 교통수단 부족	18.3	17.4	15.5
	자동차 개조 및 운전면허증 확보의 어려움	0.7	2.1	0.6
	승차거부 및 심리적 불편함	- *	5.8	6.4
	기타	2.0	10.0	0.2
	계	100.0	100.0	100.0

주: * 2020년부터 추가된 보기 문항, ** 2023년부터 '버스·택시가 불편해서'에서 수정·분리됨

- 장애인 운전자 비율은 30.9%로 2017년 28.3% 대비 상승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 경험 비율은 9.1%로 2020년 5.3%에 증가함.

【 장애인 운전자 비율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 경험률 】

(단위: %)

	2017	2020	2023
장애인 운전자 비율	28.7	28.3	30.9
특별교통수단 이용 경험 비율	5.8	5.3	9.1

주: 1) 장애인운전자 - 18세 이상 기준

2) 특별교통수단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 해피콜 등),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 비율

□ 휴대폰·스마트폰 사용률은 90.5%로 높으나, 인터넷 이용*률은 47.7%로 낮았고, 특히 노인의 경우 26.0%로 낮음.

* 인터넷 이용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 검색이 가능한 경우

【 정보통신기기 사용률 】

(단위: %)

	2014	2017	2020	2023	
					65세 이상
휴대폰·스마트폰 (스마트폰)	81.4 (38.6)	85.1 (54.4)	87.6 (56.0)	90.5 (67.3)	91.6 (55.1)
컴퓨터	32.0	30.6	29.7	29.6	10.6
인터넷	33.0	36.3	36.5	47.7	26.0

주: 인터넷 이용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 검색이 가능한 경우

④ 재난·안전 및 사회적 고립

□ 재난 발생과 관련해서 장애를 고려한 지원은 ‘재난 대비 시설·장비 지원’(20.0%), ‘재난 대응 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19.2%), ‘재난 사후 생활안정 지원’(16.6%)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재난 발생 관련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시급한 지원 】

(단위: %)

구분	2020	2023
장애를 고려한 재난 대응 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	18.3	19.2
장애를 고려한 재난대비 시설·장비 지원	24.3	20.0
장애를 고려한 재난대응 훈련	14.6	15.2
장애를 고려한 재난상황의 정보제공	10.6	12.8
재난 사후 생활안정 지원	18.0	16.6
긴급 사회서비스(돌봄) 지원	9.4	13.2
심리·정서적 지원	4.9	3.1
계	100.0	100.0

□ 아프거나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인 **사회적 고립 수준***은 **35.4%**로 전체 인구 33.0%(2023년 사회조사, 통계청)에 비해 높음. 장애인 1인가구는 **42.8%**로 높은 수준임.

* 사회적 고립도: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둘 중 하나라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사회조사, 통계청).

※ 전체 인구(2023년 사회조사, 통계청)

- 사회적 고립수준: 33.0%
-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데 도움받을 사람이 있음' 74.0%
-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음' 79.8%
-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음 51.0%

【 사회적 관계망- 도움받을 사람²⁾이 있는지 여부 】

(단위: %)

구분	전체 장애인	연령별		장애인 1인가구	
		18-64세	65세 이상		
사회적 고립*	35.4	38.3	33.0	42.8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도움받을	22.3	27.4	18.3	28.5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사람이	29.3	30.3	28.5	36.1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때	없음	56.6	59.3	54.5	64.7

주: 1) 18세 이상

2)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동거 가족외 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임

3) 사회적 고립도: '몸이 아픈데 집안일 부탁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한데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둘 중 하나라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임

⑥ 경제적 특성

□ 장애인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은 '중하'가 **46.0%**, '하'가 **41.1%**로 낮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음.

○ 장애인이 경제적 계층을 '상' 또는 '중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13.0%**로 전체 인구 26.3%에 비해 절반 수준임.

【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의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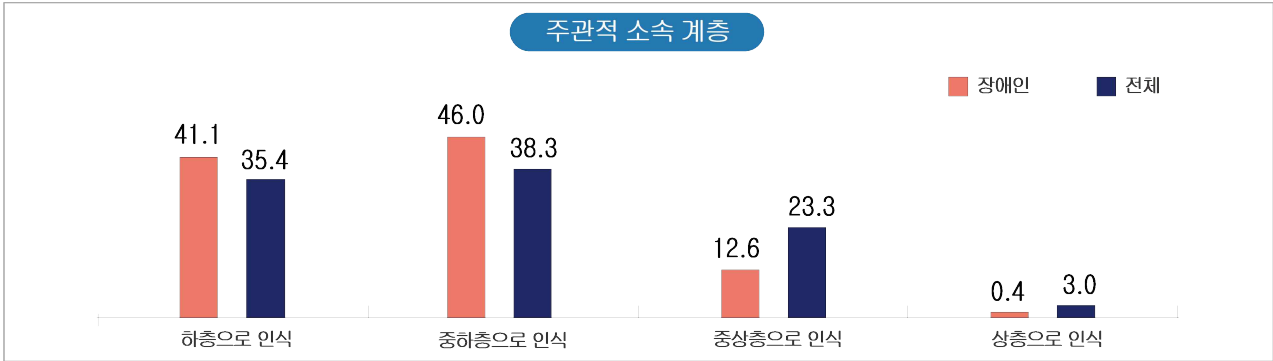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장애인				전체 인구			
	2014	2017	2020	2023*	2015	2017	2019	2023
상층으로 인식	0.8	0.7	1.0	0.4	2.4	2.7	2.4	3.0
중층(중상)으로 인식 (중하)로 인식	31.5	37.3	29.0	46.0	57.9	57.6	58.5	38.3
하층으로 인식	67.7	62.0	70.0	41.1	39.7	39.7	39.1	3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19세 이상.

2) 장애인 -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주관적 계층 인식. 2023년은 '상층-중상-중하-하층'으로 응답범주 변경

3) 전체 인구 - 사회조사 각 년도(통계청).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한 주관적 계층 인식



자료: 전체 인구 - 2023년 사회조사(통계청)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8천원, 월평균 지출은 2,426천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과 비교할 때 각각 63.3%, 66.9% 수준으로 낮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전국 1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월평균 가계지출

【 월 평균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액 】

(단위: 천원)

구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장애인 가구	전국가구 ¹⁾	장애인 가구	전국가구 ²⁾	장애인 가구	전국가구 ³⁾	장애인 가구	전국가구 ⁴⁾
가구소득액 (전국가구 대비율)	2,235	3,609 (61.9%)	2,421	3,635 (66.6%)	2,536	4,285 (59.2%)	3,058	4,834 (63.3%)
가구지출액 (전국가구 대비율)	1,706	2,822 (60.5%)	1,908	2,761 (69.1%)	1,895	3,288 (57.6%)	2,426	3,625 (66.9%)

자료 : 1) (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 4/4분기)』, (지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 4/4분기)』
 2) (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6. 4/4분기)』, (지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6. 4/4분기)』
 3) (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 4/4분기)』, (지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 4/4분기)』
 4) (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22. 4/4분기)』, (지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22. 4/4분기)』

□ 장애인 가구의 소득원은 근로·사업·재산소득이 71.9%, 공적이전 소득*이 23.3%, 사적이전 소득이 4.6% 등으로 나타남.

* 공적이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 급여, 보훈급여, 기타 정부 지원금 포함

【 가구 소득원별 비율 】

(단위: %)

구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근로·사업·재산소득	76.2	76.0	72.6	71.9
공적이전	18.1	18.7	23.4	23.3
사적이전	5.5	5.2	3.2	4.6
기타	0.2	0.1	0.8	0.2
계	100.0	100.0	100.0	100.0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 170.0천원으로 나타나 2020년 152.6천원에 비해 증가함.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의료비 비중이 가장 크고, 보호·간병비, 교통비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장애인이 아닌 경우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

【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월평균) 】

(단위: 천원)

구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월평균 총 추가비용	164.2	165.1	152.6	170.0
교통비	25.6	20.5	25.7	24.1
의료비	66.0	65.9	58.5	57.8
보육·교육비	4.1	8.0	7.5	10.4
보호·간병비	13.6	20.6	21.9	28.2
재활기관 이용료	4.2	4.8	2.6	4.8
통신비	9.9	9.8	11.8	0.2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유지비	18.9	7.2	15.3	8.8
부모사후 및 노후대비비	16.8	22.9	5.5	18.5
장애 관련 식비	-	-	-	10.7
기타	5.1	5.4	3.8	6.4

주: 2023년 - 장애 관련 식비를 별도 항목으로 조사(2020년까지 '기타'에 포함)

□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7.2%로 2020년 29.5%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전체 인구 63.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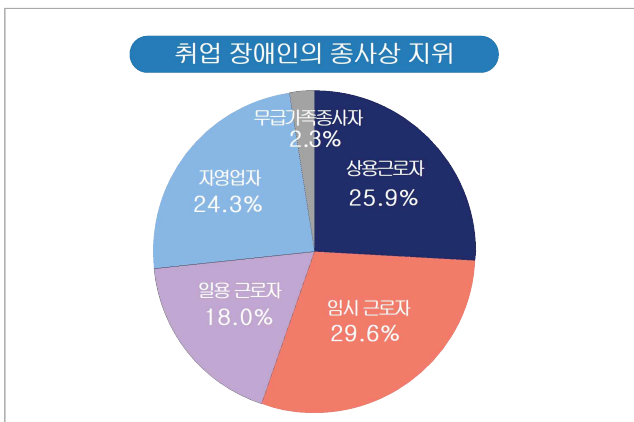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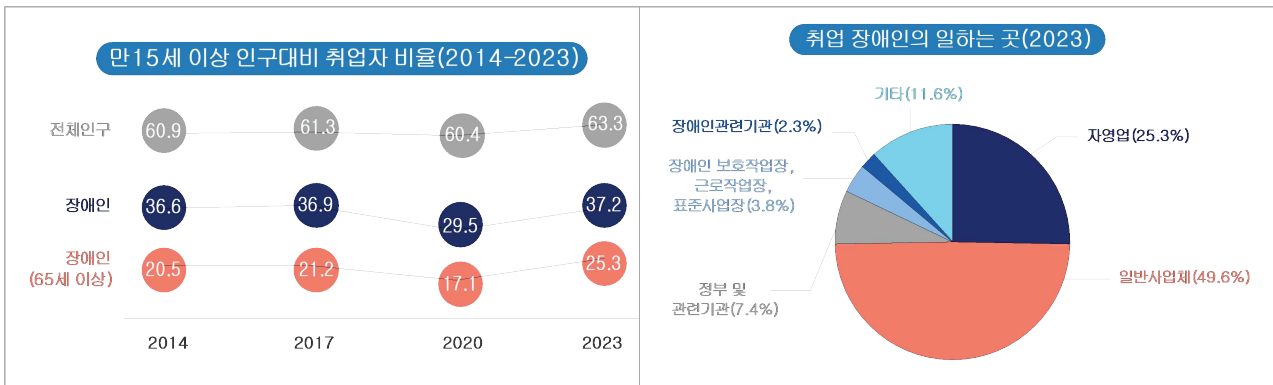
○ 장애인의 실업률은 4.2%로 2020년 5.8%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전국 실업률 2.1%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취업 인구 및 취업률 】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2023	장애인	2,567,543	996,927	955,462	41,465	1,570,616	38.8	95.8	4.2	37.2
	전국 ¹⁾	45,452,000	29,390,000	28,764,000	627,000	16,062,000	64.7	97.9	2.1	63.3
2020	장애인	2,557,895	801,039	754,807	46,232	1,756,856	31.3	94.2	5.8	29.5
	전국 ²⁾	44,852,000	28,116,000	27,088,000	1,028,000	16,736,000	62.7	96.3	3.7	60.4
2017	장애인	2,522,593	981,028	931,429	49,599	1,541,565	38.9	94.9	5.1	36.9
	전국 ³⁾	43,899,000	27,993,000	26,919,000	1,074,000	15,906,000	63.8	96.2	3.8	61.3

자료 :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3년 10월)』, 2023.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0년 10월)』, 2020.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7년 2/4분기 기준)』, 2017.



【 취업 장애인의 종사상 지위 및 월평균 임금 】

(단위: %, 만원)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취업 장애인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3.8	26.9	37.2	25.9
	임시 근로자	17.2	22.2	19.9	29.6
	일용 근로자	18.8	19.8	10.1	18.0
	자영업자	34.7	27.3	31.8	24.3
	무급가족종사자	5.4	3.7	1.0	2.3
취업장애인 월평균 임금		153	171	188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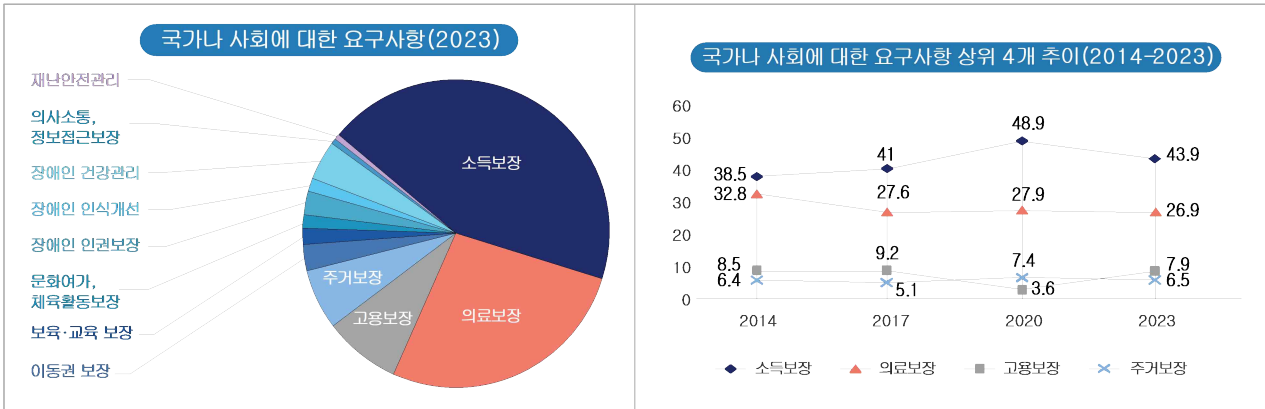
7] 복지서비스 수요

- 국가·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43.9%, ‘의료 보장’ 26.9%, ‘고용보장’ 7.9%, ‘주거보장’ 6.5%, ‘장애인 건강관리’ 4.2% 등 으로 나타남.
- 2020년에 비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감소하고, 고용보장, 이동권 보장, 보육·교육 보장, 장애인 인권보장, 장애인 건강관리는 증가함.
 - 지속적으로 높은 욕구를 보이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외에 고용, 이동, 보육교육, 건강관리 등 다양한 영역의 욕구가 높아짐.

【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

(단위: %)

구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연령별		
					19세 미만	19-64세	65세 이상
소득보장	38.5	41.0	48.9	43.9	29.1	45.5	43.5
의료보장	32.8	27.6	27.9	26.9	16.7	19.3	33.4
고용보장	8.5	9.2	3.6	7.9	9.3	12.4	4.3
주거보장	6.4	5.1	7.4	6.5	6.9	7.5	5.7
이동권 보장	1.8	3.0	1.5	2.9	2.0	2.3	3.4
보육·교육 보장	1.7	1.2	0.7	1.6	23.3	1.3	0.4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1.6	1.4	1.4	1.5	1.5	1.4	1.7
장애인 인권보장	2.7	2.5	1.9	2.3	3.6	3.3	1.5
장애인 인식개선	2.2	2.0	1.5	1.4	4.0	1.8	1.0
장애인 건강관리(장애예방 포함)	1.2	6.0	2.5	4.2	2.1	4.1	4.4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참여보장	0.6	0.5	0.3	0.5	1.2	0.6	0.5
재난안전관리	0.5	0.3	0.1	0.4	0.2	0.4	0.3
기타	0.3	0.2	0.3	0.1	0.0	0.2	0.0
없음	1.3	-	2.0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향후 보육·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특수교육 지원인력 증원과 장애 영유아·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대학 등 고등교육 지원 강화로 나타남.

- 7세 이하는 이외에 교사의 전문성 확보,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확대 욕구가, 8세에서 15세 이하는 교육비 부담 감소, 교사 및 교육기관 확대의 욕구가 높았음.
- 16세 이상은 고등교육 지원 강화가 가장 높았고, 이외에 교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욕구가 높았음.

【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 】

(단위: %)

구 분	2017년	2020년	2023년	연령별		
				7세 이하	8-15세	16세 이상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확대	20.8	5.6	1.9	6.8	1.2	0.4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19.9	25.6	26.4	36.9	30.4	14.6
교육도구, 기자재 사용시 편리성 확보	3.4	4.3	3.6	3.1	2.9	5.0
교사의 전문성 확보	9.4	9.6	3.1	9.2	1.9	1.8
특수교육 지원인력 증원	12.4	19.3	27.8	27.8	29.7	24.9
교사 및 교육기관의 확대	7.4	4.5	5.6	5.1	8.4	1.5
학교내 편의시설 확대	2.5	3.7	1.2	0.0	1.0	2.3
등하교 편리성 지원	3.8	4.3	6.0	4.4	6.1	6.7
교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8.0	4.8	6.0	1.5	6.0	8.3
대학 등 고등교육 지원 강화	3.0	3.9	9.2	0.0	1.5	26.2
부모 교육·상담 지원 확대	1.1	2.0	2.1	1.2	2.1	2.7
교육비 부담 감소	8.4	8.5	6.3	3.3	8.5	4.6
기타	-	3.9	0.6	0.6	0.4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50세 미만 성인 여성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가 24.1%로 높았고,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18.4%,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16.3% 등으로 나타남.

○ 이외에 '임신·출산 관련 교육·정보 제공',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예방·보호', '상담서비스',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 병원', '출산비용 지원' 등이 높게 나타남.

【 여성장애인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 】

(단위: %)

구분	2017년	2020년	2023년	연령별		
				18-29세	30-39세	40-49세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16.0	8.8	6.0	7.9	9.2	3.1
임신·출산·육아 관련 hot-line 서비스 ⁴⁾	4.8	2.2	-	-	-	-
출산비용 지원	9.1	10.2	4.7	4.2	5.1	4.8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8.0	7.1	5.0	1.9	1.7	8.8
산후조리 서비스	7.2	5.1	3.0	1.0	2.5	4.6
육아용품 대여	0.2	0.2	0.7	0.9	0.5	0.6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13.2	13.3	18.4	14.4	13.0	23.7
자녀교육도우미	2.4	2.7	2.6	5.2	0.0	2.4
가사도우미	7.5	7.7	24.1	24.5	17.6	27.5
활동지원사	10.1	11.3				
건강관리 프로그램	7.0	10.0	3.6	3.5	4.0	3.4
상담서비스(심리·정서)	8.0	5.3	5.3	4.9	8.9	3.5
자조집단(멘토)	3.2	0.7	0.5	0.7	0.0	0.7
학교 교육 이외의 학습 및 재능교육지원 ²⁾	3.3	4.5	1.4	1.9	1.1	1.4
장애를 고려한 여성용품 정보 제공 ³⁾	-	8.7	2.3	2.9	4.0	0.9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⁵⁾	-	-	16.3	17.1	24.2	11.4
성희롱·성추행·성폭행 예방 및 보호 ⁵⁾	-	-	5.8	9.0	7.1	3.2
기타	0.1	2.2	0.3	0.0	1.2	0.0
계	100.0	100.0	100.0 (14.0만명)	100.0 (3.9만명)	100.0 (3.6만명)	100.0 (6.4만명)

주 : 1) 18세 이상 49세 이하 기준

2) 학교 교육 이외의 학습 및 재능교육지원: 2017년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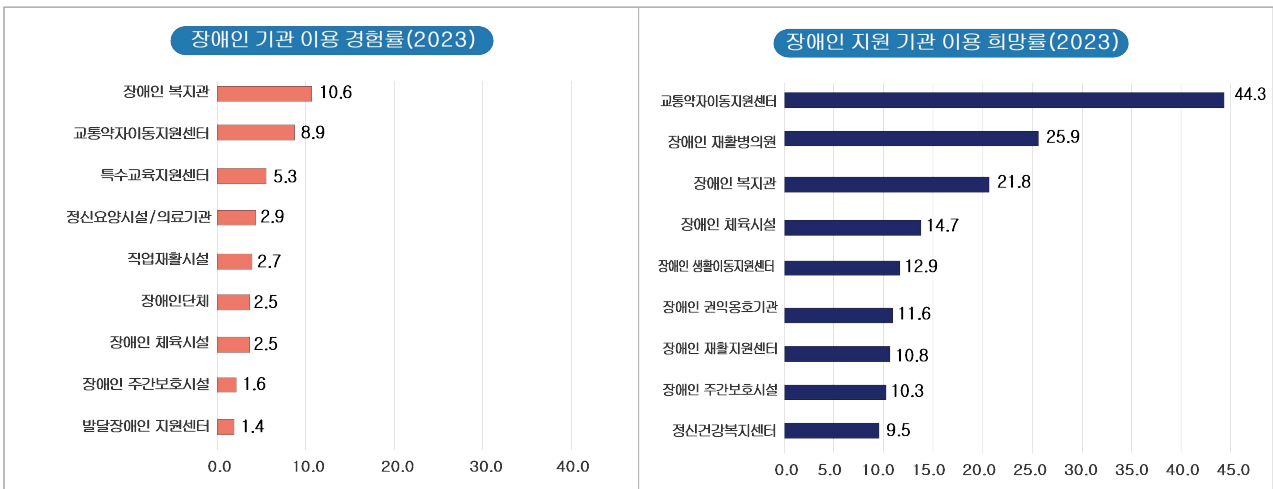
3) 장애를 고려한 여성용품 정보 제공: 2020년 신설

4) 임신·출산·육아 관련 hot-line 서비스: 2023년 삭제

5)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성희롱·성추행·성폭행 예방 및 보호: 2023년 신설

□ 장애인 기관 이용 경험률은 25.3%로 2017년 17.8%보다 증가하였으며, 이동지원, 재활의료기관, 복지 및 체육시설에 대한 희망비율이 높았음.

- 이용 경험률이 높은 기관은 장애인 복지관(10.6%),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8.9%), 특수교육지원센터(5.3%) 등임.
-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44.3%), 장애인 재활병의원(25.9%), 장애인 복지관(21.8%), 장애인 체육시설(14.7%) 등임.



□ 장애인의 장애등록 이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은 지원 수준은 2.9점으로 인식하여, 2020년의 2.6점에 비해 높게 나타남.

※ 5점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사회 지원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지원에 대한 인식 수준은 3.36점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2.69점에 비해 높음.

【 장애등록 이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은 지원 인식 평균값 】

구분	2014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전체	2.8	2.8	2.9	2.6	2.9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10	3.16	3.18	2.98	3.36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56	2.57	2.65	2.37	2.69

【 장애등록 이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은 지원 인식 】

(단위: %)

구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장애 정도별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매우 많음	3.6	2.5	3.0	3.6	7.7	1.4
약간 받고 있음	32.2	33.3	25.8	37.5	57.2	26.9
별로 받지 못하고 있음	49.0	54.3	47.1	47.8	31.1	56.8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15.2	9.9	24.1	11.1	4.0	1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장애인의 98.2%는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평균 4.8개의 서비스를 이용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99.6%가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평균 6.6개 서비스를 이용함.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97.5%가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평균 3.9개의 서비스를 이용함.

※ 장애인 서비스: 조세를 통한 연금·수당지원, 보육·교육, 의료 및 재활지원, 돌봄 지원, 세제혜택, 공공요금감면, 일자리·자립자금대여, 기타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주택관련 분양알선·가산점 부여 등 총 34개 사업에 대한 응답